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봇물

지나해 도입후 서귀포시에서 도로·공원 46건 접수 매일 이뤄지지 않으면 녹지공간 축소·난개발 우려

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도로에 일몰제가 적용, 대부분이 자동실효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부터 도입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줄고 있다. 이에 따라 2년도 채 남지 않은 일몰시한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심 녹지공간 축소와 함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도로 32개 노선(신청자 38명) 16만919㎡, 공원 3곳(신청자 8명) 105만3630㎡에 이른다. 신청자

는 지난해 37명, 올해 9명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국토부가 2016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해제신청 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의 실효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한한다.

서귀포시 지역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지경만 해놓고 길게는 30~4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와 함께 최

근 몇년 새 급등한 땅값 여파 등이 복합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해제 신청이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설명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도로 9개 노선(신청자 15명)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가 결정된 도로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기존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또 8명의 토지주가 해제신청한 공원 3곳의 경우 2곳(신청자 5명)은 반려했고, 나머지 1곳(3명)에 대해서는 법적 이행절차에 따라 열람공고를 준비중이다. 시는 공원의 경우 도심의 중요한 녹지공간인데다 면적이 넓어 토지 소유자도 여럿이어서 특정 구역만 해제할 수도 없어 반려조치하는 상황이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626개소 297만9000㎡, 공원 10곳 178만 3000㎡ 내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로 총 1조14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워 현재 도로 40개소, 공원 10곳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 집행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제주도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사업대상도로와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삼매봉공원 등 도시공원의 경우 최대한 매입한다는 원칙 아래 해제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0일 대정읍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신화역사공원 하수처리 대책 마련을”

양윤경 시장, 마을 순회 시작 첫날 대문동·대정읍 의견청취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10일 대문동과 대정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

양 시장의 이번 순회 방문은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지역내 17개 읍면동을 돌아보면서 마을별 현안사항을 비롯해 주민들이 평소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현안 등에 관심이 있지만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주민과의 대화상황을 SNS(페이스북)를 통해 생중계했다.

첫날 대화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노인회장, 이·통장, 자생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서귀포시장에게 직접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대문동은 ▷새서귀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설 ▷오일시장 연

계 버스노선 개선 ▷시티버스를 서호마을과 치유의 숲 연계 운영 ▷버스정류장 의자 설치 등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호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시가지 도로 확장 ▷혁신도시와 산록도로 구간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등 도로개설 건의 ▷하늘의 보존과 개발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조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대정읍은 ▷2020년 도시계획 일몰제와 관련해 꼭 필요한 도로, 도시공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청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추사관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한도 원본 구매 ▷마라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양 시장은 "모든 건의에 대해 부서장들이 직접 방문해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진정성을 갖고 함께 논의해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지하수 오염실태 파악 힘들다”

박원배 선임연구원, 지하수 수질관측망 개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 지하수 수질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수질관측망은 대부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측이며 실제로 오염된 지하수층이 어느층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박원배 선임연구원은 이날 정책연구보고서 '지하수 수질관측망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박 선임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 전역을 대상으로 100여개소의 지하수 수질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지하수 수질관측망은 대부분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측 등이며 현장 여건에 맞춰 수질관측점이 자주 변경되고 있어 10년 이상 연속적인 측정 자료를 보유한 관측점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 지하수는 복잡한 지질구

조로 인해 지하수층이 2~3개 이상의 여러 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층마다 수질이 다르지만 현재의 수질관측망은 각각의 지하수층별로 지하수를 채수할 수 없어 실제 오염된 지하수층이 어느층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지하수 수질관측망은 100여년 이상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유럽의 EU 설치 기준인 대수층 유역면적 20~25km 당 1개소 이상 분포 할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 전역을 16개 유역별로 나눠 고지대, 중산간 지역, 하류지역 각 3개소에 (한정·성산 유역은 200m 이상 지역이 넓지 않아 2개소만 설치) 수질 전용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개소 당 상부 대수층(지하수가 부존하는 층)과 하부 대수층의 지하수를 별도로 채수할 있도록 2개의 관측정이 필요한만큼 총 46개소 78개의 관측정이 필요하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블록체인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블록체인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

도의회 행자위 전문가토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특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원 클라우드 대표는 "암호화폐/블록체인/토르익노미"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개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토큰 등 금융생태계, 국가별 ICO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국가 주도 화폐의 실패를 보여주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탄생해 전세계적으로 통용량이 증대하고 있다"며 "초기 인터넷 시대에 Airbnb, 우버, 페이스북의 고용 창출 및 투자 가치를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크립토 생태계

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는 생태계의 강자 출현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위 안의 암호화폐 가운데 우리나라가 만든 코인은 블록체인 개발사 더 루프가 주도해 개발하고 있는 아이코(29위)가 유일하다"며 "반면 태국은행은 최근 현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세계은행은 채권발행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허재혁 변호사, 박경린 제주대학교 전산통계학과 교수,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정민구·김경학 도의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시 추석맞이 나눔 21일까지 대대적 추진

제주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격려하고, 온정이 넘치는 추석맞이 나눔 문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기간은 21일까지 국민기초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주민 1만636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87개소 3401명이다.

제주시는 제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대상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를 위로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나눔문화 실천을 추진한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제주시 공고 제2018-262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제주삼다수공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2일

제주시장

1. 도시관리계획(안)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7-35 일원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나. 변경사유 : 제주삼다수공장 증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명 세부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5-1	삼다수 공장	산업 유통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번지 일원	-	14,254 (중) 132,672	2011. 5. 18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치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명 세부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5-4	삼다수 공장	산업 유통형	81,396 (중)65,530 146,926	2003.4.15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복지에 관한 계획 변경(계제 생략)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9. 12. ~ 2018. 9. 27.(15일간)

나. 관련도서 : 계제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제주시청 도시계획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서귀포철심리가요제

행사의 목적 : 서귀포철심리축제와 연계하여 서귀포철심리의 아름다움과 심비경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주민통합을 유도하고 서귀포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함

세부추진계획

- 행 사 명 : 제22회 서귀포 철심리 가요제
- 행사일시 : 2018. 10. 7(일) 오후 7시
- 장 소 : 서귀포철심리축제 지구리공원 특설무대
- 주 최 : 서귀포문화원
- 후 원 : 서귀포시, 서귀포철심리축제조직위원회

기타 특이사항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의 제주도민
- 참가분야 : 출연자 자유 선정
- 신청기간 : 2018. 9. 10(월) ~ 9. 28(금) 오후 2시 마감 (휴일 및 휴일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음원mp3파일
- 신청주소 : sg3789@hanmail.net 또는 팩스 732-3789
- 신청서는 문화원 및 철심리축제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 예 선 : 2018. 10. 2(화) 오후 7시 서귀포시민회관
- 심사기준 : 가창력, 음정, 리듬, 표현력, 태도, 관중호응도
- 평가방법 : 심사위원 전원 순위 합산제
- 상 금 : 대상100만원, 금상50만원, 은상20만원, 인기상10만원 ※각1팀
- 시 상 : 서귀포시장, 서귀포문화원장, 축제조직위원장, 축제집행위원장
- 문 의 : 서귀포문화원 사무국(전화 733-3789)

행사개요

- 예선·본선 참가시 본인 확인 증명서(신분증, 학생증 등) 필참
- 노래는 1절까지이며 예선 경연 결과는 현장집계 후 발표함
- 시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개인 부담임
- 본 개요에 대상 혹은 최우수상 수상자 및 응원 위임자, 현지 가수활동 등 하는 지는 참가할 수 없음

서귀포문화원장 www.seogwipo.org

2018년 제주뇌병변장애인권대회

안녕하십니까? 파란 하늘이 좋은 9월! 장애인도 사람이다 함께 살자를 외치던 (제주뇌병변장애인권대회)가 5주년이 되어 기념식 및 제주뇌병변장애인권대회 인권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권리보장 것발을 세우며 다함께 외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존중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 소중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셔서 함께해 주십시오.

일 시 : 2018년 9월 15일(토) 10:00

장 소 : 제주탈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주 관 : (사)제주뇌병변장애인권협회
- 주 최 : (사)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 후 원 : 제주특별자치도
- 연락처 : ☎ 064)725-1911 Fax 064)725-1922
- ※ 후원계좌 : 농협은행 351-0702-5407-33 (사)제주뇌병변장애인권협회

(사)제주뇌병변장애인권협회 회장 천 선 자

(주)제주시시스템비계 (주)한진철거

시스템비계 (클린사업) 등록업체 (소규모현장 시스템비계설치시 정부지원)

시스템비계 임대(판매)

안전 발판 임대(판매)

정확한 설계

안전시공

비계 공사 전문건설업 철거 공사 전문건설업 석면 해체, 제거업

관련문의 722-0407, 724-1420